2026-02-15-icsc 핵심예배-대학.청년부 헌신예배 녹취록

말씀제목: 미래가 있는 청년
말씀구절: 창37:1-11

1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2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십칠 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3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4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5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6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7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8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9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10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11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들어가는 말씀
청년들이 와서 그런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자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처음 하다가 보니 다음에 뭘할지 몰라하는것 같다. 어느 단체나 가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다 중요하다. 아주 분위기를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받아서 교회를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미래를 가진 청년이다. 미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 우리가 미래를 가지고 있겠지만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 단어가 중요하다.
복음을 가졌다는것은 모든것을 가졌다는것이다.

1)우리는 혹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럴것이다.
우리도 다 그렇게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네게 줄것 다 주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문제에 도전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것이다.

2)오늘 본문이 요셉인데 평생을 살고 난뒤에 자기 인생을 어떻게 결론을 내었을까?
정말로 복음안에서 내게 주신 꿈을 이루셨다고 하지 않겠는가?
그날 받은 그 꿈이 내 인생의 모든것이었다고 결론내렸을것이다.
성경전체에 결론이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정복하게 되있다.

3)어디를 가서든지 거기에 중심이 된다. 아침에도 말하지만 이제 시작하였지만 남미 선교의 중심이라고 말하면 이미 하고 있는 자들이 웃을 것이지만 만일 다음세대에 일꾼이 나와서 남미에서 참선교하는 단체가 여기뿐이라고 하면 참중심이 될것이다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대부분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할때보다 더 확실한 복음가진 단체가 나왔다면 어떻게 보겠는가? 그 단체가 미국복음화 하다가 한 세기가 지나갔다면 역사적으로 뭐라고 할것인가?

우리 생각에 길면 1년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예사로 100년 1000년 이상이다. 지금 우리가 쳐한상황을 보고 이야기 하면 속는것이다. 왜 속는 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하실것이다. 그러면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일을 하시지 거꾸로 알고 있는자와 일을 하겠는가?
기준은 성경인데, 성경에 바른 복음을 가지고있다면 보통일이 아니다.
문제는 보통일이 아니라는 눈이 안열리면 전에와 별다를것이 없다.

진짜 청년들에게 역사 일어나기를 바란다. 눈 딱 떠야 한다.
눈을 뜨는 비밀은 내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누리는것이다.

메시지를 진짜 듣는것이다. 계속 훈련을 따라 붙는 것이다.
그러는 중에 어느날이 와서 눈이 열리는것이다.

4)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곳에 그 것의 중심이 되면 정복한것이다. 우리 인생이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청년헌신예배를 드리자고 한것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렇다.

구체적인 이야기인데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것이다. 대단한것은 아니고 3번에가서 이야기 할것이다. 조그만 자세의 변화에서 일어난다. 그거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항상 가져야할 언약을 먼저 확인할것이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많은 표현을 할것이다. 가장 그 인생의 정확한 표현은 뭐냐 언약을 가진자이다.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라. 나는언약을 가졌는가? 대부분은 믿는다 나는 언약을 믿는자이다. 그런데 내가 언약을 가졌냐고 하면 달라진다. 요셉은 이 부분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 형들하고 달랐다.

1.언약을 가진자 - 이렇게 되어야 한다. 되려면 들어와야 하고 주시라고 기도하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때도 가장 좋을때가 딱 들어와서 깨닫고 눈열리는 시간표가 필요하다. 이것이 언약이 되어버리면 이제 미래를 알고 간다. 이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은 확신이다 아무도 이 확신을 깨지를 못한다.

1)어떻게 될지를 이미 알고 있다. 사람들에게 말하면 잘못하면 미쳤다는 소리를드겠지만 자신은 여기에 대하여 절대 확신을 가지고 의심이 없다. 이렇게 되버린다. 아주 귀한것 아닌가?

2)만일 여러부 나이에 이렇게 되어버리면 진짜 인생정복이다. 요셉처럼 되어지면 정복을 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것이다.

3)주역이 된다. - 진짜그렇게 된다. 어느날 노예에서 총리가 되버린것이 주역이 된것이다. 이 총리는 그냥 총리가 아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진짜로 있기를 바란다. 선교 오늘부터 가는데 거기에서도 내가 뭘 잘났다고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겠는가? 그 사람들이... 자기도 갈급해 있는 상황에 있는데 거기에 맞는 복음을 듣고 읽고 있는 성경에 맞으니까 반응을 하는것이다.

언약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주시면 달라지는것이다.
4)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이다. - 내 인생에 위하여 딱 맞는 답을 주신것이다. 무슨일이 있을것이라 알고 간것이다. 일일이 무슨일인제 구체적인것은 없어도 어디로 갈지는 안다.

2.방법을 하는 사람이다. - 요셉은 그런사람이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아는 사람이다. 언약을 누린자이다.
1)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다. 복음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늘 듣는 말인데, 어느날 들어와서 내게 말씀이 되어버리면 완전히 다른 말씀이 된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것이 있다.

2)하나님의 소원 -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 권세있다. 아주 이상한 일하고 실패한것 같은데 뒤집어 버린다. 그정도로 이것이 중요하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가서 거짓말했다 그러면 매 맞아야 한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역전 왕이 혼비백산되었다. 아브라함에게 두번이나 그런일이있다.

그리고 다말 이야기가 있다 유다가 고백을 했다 그가 내보다 옳다고 했다. 이상하고 잘못된 일이다. 역전시켜버린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실수 할수도 있는데 복음은 이것을 뒤집어 버린다. 하나님의소원의 비밀로 가면 뒤집어 버린다는것이다. 이것이 청년,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실수 했다. 말도 안되는 실수를 했을수도 있다. 그래도 이것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살린다. 여러분 여기에 눈 열려서 진짜 답 되기를 바란다.

윤리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어찌 내를 때리냐고 따질수있는 애굽왕의 상황이지만 이것은 불합리 한것이 아니고 언약적인 합리적인것이다. 아브라함을 살려나야 그 이후에 많은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왕의 입장, 잘못한것은 아브라함이지만 왕을 세우고 아브라함을 죽여버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왕은 아무리 살아있어도 단 한명도 살리지 못한다. 그래서 왕을 죽이고 잘못한 아브라함을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고 축복을 한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것의 비밀이다. 여러분은 어느정도인가 하나님은 이시대에 세계복음화이잖은가 진짜 세계복음화에 생명을 걸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 사람이 결정적인 죄를 지었다면 성경에 몇가지 예를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 버렸다. 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굉장한 언약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판하고 그런다. 하나님이 그러면 안되지 정당해야지 안그런가? 하나님은 사람의 눈의 정당함을 뛰어 넘었다. 정당한것인데 잡혀가지고 행동이 거꾸로 가서 결국 사단에게 다 잡혀서 죽게 되는것이다.

오늘 아침에는 이런부분에 시차적인것을 이야기 했다 지금은 근본원리적인 조건이다. 그러니 요셉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뒤집어 버렸다면? 아침에 생각한데로 전부 싹다

죽는다. 그러니 이것을 원수를 갚거나 기타 정복을 하거나 할때 시차적으로 멀리 돌아서해야 한다. 아침에는 이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무엇인가? 원리적인것이다. 내가 아주 불합리한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 주셨다. 우리에게 이눈 열리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것의 비밀이다.

3)위에것을 아는 사람은 영적인것의 사람이라서 영안이 있다. - 하나님과 통하는것이다 하나님과 안통하면 어떻게 되냐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야 한다 그러니 힘들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과 안통하면 불신자들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 청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복음의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그냥 사람에게 되는것 뿐만 아니고 발견이 되어야 한다.

4)눈이다. - 발견이 되어졌다는것이다. 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최고의 가치구나 세상에!... 이것을 위하여 모든것을 용서하셨구나. 여기에 대드는 인간들은 싹다 죽였구나 최고의 가치이다. 노아 한명을 살리기 위해 전세계 인간을 싹다 쓸어 버렸다. 비판하는 사람이 말할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하나님은 더살리기위해 노아를 살린것이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이다. 보통 말하기를 그때 인구가 50억, 70억 이라고 말하는 과학자들이 말이다. 잘 모르겠으나 싹다 죽었다. 노아를 죽이려고 하니까 노아를 건져야 한다. 꼭 같은 원리이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렇지 거기에 죄때문이 아니다. 죄는 근본이 이것이다. 원죄가 있으니 그 사람이 죽은것이다. 원죄 없으면 안죽인다. 더 근접된 이유는 거기에 사람을 살릴만한 10명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도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사람을 살리는 목적인데, 신학적으로 얼마나 극단적인 이야기를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살리는 사람에게는 항상 보호하신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도 살리신다. 성공의 비밀이요 세상정복의 비밀이다. 내게 역사하는 사단을 죽이는 비밀이다. 복음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는 비밀이다. 세계복음화는 근본언약은 아니다. 근본언약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런데 그것을 전해야 하는것이 세계복음화이다. 근본언약이 중요하다고 가만히 방에만 있다면 결국 이스라엘 같이되는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전하는것이 이만큼 중요하고 여기에 들어간 사람은 그만큼 지키고 축복하신다. 실수해도 죄를 지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원칙중에 하나이다. 확실하지 않기에 일일이 케이스를 따질 수는 없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런것이다. 이것이 들어가 사상이 되버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키시고 축복하시낟. 중요한 일이기에 오래 이야기 했으니 청년들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3.당면한 문제 - 우리가 해야 될것
1)렘넌트 운동 - 지금 우리 교회 처한 시간표는 여러분들이 조금 힘을쓰고 노력해서 다민족 렘넌트들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금도 보면 다민족 렘넌트들이 별로 없다. 이것은 여러분을 탓하는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고개를 숙이고 안들어가서 그렇다. 새신자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끼리 팀을 만들면 발을 못들여 놓는다 이것을 깨버려야 한다. 새신자들도 자기와 친한 사람이 있으면 적응을 잘할수 있다. 그런데 아닌 사람은 누구를 잡고 들어가나 잘 안된다. 얼마전에 이야기 했다.

우리교회 나간 분이 이야기 했다 첫날은 새가족 대우를 해주니 감사했는데 두번째 주부터는 누구와 같이 점심을 먹을 까 고민이 되더라고 하였다. 앞으로 새가족부는 같이 밥먹는것은 괜찮다고 본다. 적응이 되면 각부서로 가거나 교구로 가면된다. 오늘 다민족 예배드리는데 어느 청년이 나와서 고백을 했다. 내가 조금 평소에 기도를 하고 있었던 청년이다. 울면서 고백을 하더라. 다 이야기 할 수 없고 지금까지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 하고 나누지 못하는것에 대하여 많이 눌렸다고,,, 오늘 메시지가 자기에게 부뒤쳐 오고 아주 확실해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하겠다고 고백을 하더라. 언제 한번 마쯔다 목사가 이야기 하더라 언젠가는 그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한적이 있다고 그래서 선교이후에 다시 이야기 하기로 했다. 내가 보기에는 딱 시간표가 된것같다. 예배드리는 사람 20명이 있었는데 3분의1이 같이 울더라. 일단은 준비된 사람이다. 벌서 우리와 팀이 되있어야지, 청년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도 마찬가지이다. 마음을 열고 내가 숙여야 한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리한다면 굉장한 비밀을 누리게 된다.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금 다민족 부서 어른들, 다민족들이 헌금을 안하는줄 알았는데 안그렇더라. 그중에는 우리 성도들 평균수준 이상으로 하는 분들도 있더라. 물론 교회 절대 안떠난다. 말씀 듣는것 보면 다르다. 아주 집중을 한다. 내가 가서 부족하지만 영어로 하는데 마리오전도사님이 통역을 한다 영어로, 영어로 하는게 힘들고 부담이 된다. 그런데 딱 서면 짜악 빨아들이는것 같아서 내가 은혜가 된다. 다민족 절대로 예사로 생각하면 안된다.

한국 사람은 마이널리티다. 스페니쉬보도 매조리트다. 이것을 무시하는것은 하나님앞에 틀린것이다.
우리도 한사람 한사람 제자로 서야 한다. 정말로 복음, 언약때문에 제대로 선 사람이 되어야 한다.
복음을 전하고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 세대에 미국에 복음의 문이 열리면 렘넌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준비가 안되었다면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될것이다.

뜻이 있는 렘넌트 청년들이 마음에 담기를 바란다. 비밀 정도가 아니고 권세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이다. 이것처럼 진짜 세계복음화에 생명을 걸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신다. 실제적인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온다. 남의 나라이야기가 아니고 내 인생의 답이다. 틀림없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고 있고 그 사람을 지키신다. 아주 중요하기에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 눈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vip 이다. 사람 눈에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vvip이다. 그런 사람을 손대면 다 죽여버린다.

2)다민족 청년들과 함께 갈수 있는 문이 열려야 한다. - 교회안에 렘넌트들과 접촉을 좀 많이 해야 한다. 청년들이 부서에가서 교사하는것은 감사하다. 조금 기도하고 마음을 열고 중고등부 아이들과 친해져서 언니 오빠 형님이 되어야 한다. 아마 상당히 기다리고 있을것이다.
여러분들도 일해야 하고 그러니 바쁠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하면 틈이 난다. 기도하면 답이 오기때문에 간단한 것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여하튼 이런 부분에서 청년들이 조금만 눈을 떴으면 좋겠다는것이 우리교회의 시간표인것이다.

3)청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사정이 있겠지만 예배를 예사로 여기는 분들이 있다 예배를 귀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오늘 청년부 헌신예배에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감사하다. 청년들을 사랑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감사하다. 그래서 정말로 예배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예배나 기도를 보면 각개인마다 분량이 있는것 같다. 나는 일주일한번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기도도 나는 하루에 1분 5분 괜찮지만 1시간씩두번 기도하는것 못해라고 할수도 있다. 그게 이제 자기 영적분량이라고 생각하면된다. 결국 우리가 전부 다 24가 되어야 정상이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특별히 예배 회복이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결국은 청년부가 아니라 전도이다.

4)전도- 새가족이다. 한번 교회오는것은 진짜 기적이다. 바깥에 나가서 전도해본사람은 누구든지 인정을 할것이다. 사람이 한번 교회 들어온다는것은 보통일이 아니다. 들어왔으면 생명을 걸어야 한다. 그 사람을 살릴려면, 오늘도 새가족이 저 뒤에 두쌍이 있었다. 한분이 나가는데 누군지 알아보라고 했다. 보니까 인터넷 보고 찾아온 사라이더라. 그런데 여러분 보고 탓하는것은 아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그런 분들이 오면 그냥 쳐다보는 사람이 95%더라. 얼마전에 이 지역에 산다는 권사님이 왔다. 지금은 한국에 가있다. 여 앞에 앉아있는데 예배 끝나고 가시더라. 그런데 가만히 있더라. 한분이 캐취를 해서 빨리 뛰어가서 잡더라. 누구시냐 우리교회 밥 맛있으니 먹고 가시라 하더라. 그래서 사모가 나와서 이야기 하다보니 가야 될 사람이라서 가시더라. 처음 잡아본 사람이 빨리 가서 식당에서 투고를 해오더라. 밥은 있지만 어디가서 자랑할만한 밥은 아니 잖은가 그런데 이분은 우리교회 밥 너무 맛있으니 조금 기다리라고, 그것이 그분을 감동을 준것이다. 이 마음이 있느냐 이말이다. 그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다. 그분때문에 그 권사님을 잡았다. 한국 한달 있다 오시면 알겠지만 이분은 타주에 어떤교회에서 18년동안 성경을 가르쳤다고 하더라. 연세는 많은데 보통이 아니다. 18년이나... 성경을 가르친분이니까 메시지 듣는것이 다르겠지, 우리 목사님은 성경만 가지고 말을하니까 너무좋다고 하더라. 내 칭찬이 아니고 그렇게 들렸을 것이다. 눈을 뜨시라 여기와 있는 사람들을 잡아야 한다. 우리 청년들도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응답을 받겠는가 대부분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하겠다 언약을 누리는것, 그러나 그것은 근본이다. 그 위에 하나님이 우리가 해주기를 원하신다 그게 전도이다. 이 마음이 연결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하고 하나가 된것을 느낀다. 이것은 내 경험이다.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이야기 할때는 하나님과 거리가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하고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것이 세계복음화가 들어오고 난뒤에는 드디어 하나님하고 통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 진심으로 담기게 되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청년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4.결론

1)먼저는 내 인생에 답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 가장 근본적인것은 복음이 답인것을 발견해야 한다. 복음은 믿고 있다. 감사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 발견이 되었는지 생각을 해보라. 복음이라는것은 그 안에 숨어있는 단어가 있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이원하시는 전도가 그 안에 숨어있다. 이것이 정말로 통하는 축복이 청년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2)언약을 가진 요셉은 모든것을 알고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것을 다 알고 있다. 이런 답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이 웃을 것이다. 형님들이 이야기 하는것은 우스울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 한칸 올라서버려야 한다. 밑에서 맨날 싸우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영적상태이고 눈이다. 말씀을 계속듣고 기도하고 발버둥치는 사이에 시간표가

오면 눈이 열린다. - 환경, 일이 일어나고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마음에 들어오겠는가? 이렇게 해서 답이 나면 나도 상관이 없는것이다.
3)나도 상관없다 - 내 생각 나의 뭐(자존심)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시간표대로 끝이다. 모통은 자기 인생에 잡혀서 삶이 어떠니 기타 어떠니 그런게 있는데 여기서 초월이다. 이렇게 되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끝가지 답을 줄수있다. 끝가지 라는 말은 뭐 잘못되었다면 고쳐가면서 결국 그 자리로 데려간다는것이다. 우리가 여러가지 많은 단어를 들었다. 그런데 결론으로 이야기 하면 한가지이다. 복음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것을 내 마음에 연결해야 한다. 그 간단한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 하는것은 설명이 필요하기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대청을 진짜로 축복하기를 원한다. 진짜 눈뜨고 인생에 승리하기를 바란다.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있기를 바란다.

기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중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되고 성취가 되게 하시고 청년들이 은혜받고 힘을얻게 하시고 요셉처럼 한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교회가 그리되고 오늘 예배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될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